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15일 (음력 4월 11일) 수요일

## Photo 漫評

### 거짓의 한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서 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0일 K5제1전투비행단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500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펴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글=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스



전두환



박지원



시민들

## “교권 추락·1일 휴업”...광주·전남 우울한 ‘스승의 날’

### “괜한 오해 살라” 광주 5개교·전남 81개교 ‘1일 휴업’

### 교권침해 3년간 600건 육박...폭언·육설, 수업방해 순

광주·전남지역 교사들이 우울한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촌지나 값비싼 물건 등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아예 휴업하는 학교도 잇따르고 있다.

◇“오해 살라” 광주·전남 86개교 ‘1일 휴업’

1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15일 휴업하는 초·중·고등학교는 광주가 5곳, 전남이 81곳 등 모두 86곳에 이른다. 초등이 57곳, 중학교가 19곳, 고등학교가 10곳이다.

10여 년 전에 비해 광주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학교장 재량으로 문

을 닫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전남은 10곳 당 1곳 꼴로 스승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 분필 대신 휴업을 택했다.

“순수하고 엄숙해야 할 스승의 날이 혹시 모를 뒷말이나 뒷담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다”는 주장도 적진 않지만, ‘스승의 날 휴업’은 연례행사화된 지 오래다.

정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도 엄격해 꽃이나 개별 카네이션은 물론 음료수 조차도 주고받는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교사들의 운신의 폭은 날로 좁아만 가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언제부턴가 모든 교사는 ‘예비범죄자’ 신세가 됐고 교육현장의

신위는 무너져 내려 있었다”고 푸념했다.

50대 중학교 교사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 쌤, 고미워요 라는 글귀를 써붙인 박카스 1병을 받아도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며 “3년 전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되레 피해 다니는 웃픈(웃기고 슬픈)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수업 전 기념행사와 정규수업 중 ‘스승께 편지쓰기’를 하는 학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천개의 지지댓글이 달리는 등 스승의 날 폐지 여론도 뜨겁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광주가 319건, 전남이 275건으로 모두 594건에 이른다.

광주는 2016년 92건에서 2017년 163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정정됐으나 여전히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만 지난 한해 28건이나 발생했다. 상해나 폭행도 7건에 달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7건이나 됐다. 교사 성희롱도 3년 새 6건 발생했고, 수업 방해도 40여건에 이른다. 심각한 사안에 연루된 학생 17명은 퇴학 처분됐고, 60여명에게는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에서도 2016년 90건, 2017년 85건, 지난해 100건 등 교권침해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3년 간 폭언이나 육설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방해(24건), 성희롱(3건), 폭행(1건) 등이 뒤를 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9건이나 발생했다.

◇교권침해 3년간 600건 육박...폭언·육설, 수업방해 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또 하나의 지표로 교권 침해를 빼놓을 수 없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한반도의 사랑  
당신을 위해

## 제29회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축제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개회식 : 10:00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우슬축구전용 2구장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해남군  
주관 :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해남군게이트볼협회  
후원 :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조영택(오른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자회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광주세계수영대회 두 달 앞으로” 손님맞이 분주...시설 OK · 흥행은 고민

#### 국민적 관심 ↓ · 북참가 역시 불투명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회 준비 상황을 밝혔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로 꼽힌다. 한국은 광주 대회 개최로 5대 메가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4번째 국가(독일·일본·이탈리아·한국)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스 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조직위는 마스터스 대회 참가자를 포함해 총 1만5000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장 건설은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린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의 공정율은 84%다. FINA의 권고에 따라 좌석을 종전 3388개에서 1만 648개까지 늘리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음달 5일 개막하는 동아시아대회에서는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부대종합운동장(수구), 조선대축구장(하이다이빙)도 80% 이상 공사가 진척됐다.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은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5개동 6000여명 동시

입실이 가능하도록 지어졌다. 대회 종료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입주한다. FINA 주요인사와 대회운영인력들은 광주시 호텔과 대학기숙사 등에서 생활한다.

조직위는 광주시와 함께 선수, 임원, 취재진 등을 위해 승용차 250대, 승합차 60대, 버스 110대 등 총 420대의 차량을 마련했다. 다만 좀처럼 나오지 않는 열기는 조직위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스타플레이어의 부재로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낮아지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달리 발목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장권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위가 발표한 입장권은 총 41만9000장이다. 목표 판매량은 37만장이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조직위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참가 여부 역시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조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때는 북한에서 많은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해 관심이 많았다. 우리도 2월까지의 참가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